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11차 세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 요한복음 17장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특히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믿는 자들의 상호 내주에 대해 말하는 요한복음 17장까지 왔습니다.

아들은 요한복음 17장의 위대한 제사장 기도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의 관점입니다. 제 생각에 전통적인 구분이 옳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1-5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6-19절),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니다(20-26절). 예수께서는 21절, 요한복음 17:21, 20절에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구하옵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하심은 사도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믿는 자들이 서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버지 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제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서로 내주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아버지 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요한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와 아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시간에 믿는 자들은 아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 요한복음 14:
23에서 이전에 언급했듯이, 아버지 와 아들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을 체계화하도록 격려합니다.

사실, 요한은 체계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신격의 통일성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인격을 구별하지만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46에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의 외침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서 입증된 분리조차도
관계적이고 존재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은 신격의 상호 내주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창조주-피조물 구분을 고수하며 삼위일체가 서로와 우리 안에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신자들이 피조물적인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삼위일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게 자격에 대한 설명이 어때요? 우리는 삼위일체적 인물들이
항상 피조물적인 방식으로 공유해 온 신성한 사랑과 삶에 참여합니다.

신은 영원하고 무한한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도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자로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신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불멸이고, 우리는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항상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적 인격의 상호 내주성은 본성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분의 신으로서 누구인지입니다. 삼위일체의 우리의 내주성은, 그 말은 터무니없지만,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삶에 참여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지만,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일시키는 주요 행위자이며, 구원의 적용에서 성령이 주요 행위자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창조물로서,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자들은 삼위일체적 인격체들이 항상 공유해 온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삶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합일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이런 것들을 수년간 가르쳐 온 후에도, 이해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같은 것을 말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가 에베소서 2:1-4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와 함께 일으켜졌으며,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공유합니다. 더욱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불멸의 신과 교제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페리코레스시스 사업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죽은 피조물들이 지금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심지어 그 피조물들이 지금과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추종자들과 아들의 공동 추종자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는 22절과 23절에서 아버지와 계속 대화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육신하신 아들에게 주신 신성한 영광 은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근거이며,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요한복음 17:22,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을 덧붙이시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니,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당신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3절을 덧붙이시며,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것과 자신의 안에 거하는 믿는 자들을 결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성한 동조자, 페리코레스시스, 할례는 독특하며 단순한 피조물로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기독교의 연합에 대해 제시하시는 척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에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시 한 번, 요한은 우리에게 선교적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세상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관련하여

나는 경건하게 말한다.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은 분명 대문자 M을 쓴 위대한 선교사이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사랑의 주제로 돌아온다. 그는 앞서 한 말씀을 되뇌었다.

25,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알고 있으며,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도 압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계속 알릴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제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하신 6절에서 8절까지를 되뇌시는데,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 를 계속 그들에게 계시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의 목적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기도의 마지막 세 단어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역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고 내가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스어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복음에 대한 결론. 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거나 그와 함께 묻히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주로 1인칭으로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 선한 목자,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담론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바울이 서신에서 밝힌 진리에 대한 보완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할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는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자들은 서로 서로 안에 거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내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할 것이고, 성령도 내주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과 믿는 자들은 서로 내주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거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안에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아버지 와 아들은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중일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요한이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고,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여 이것을 삼위일체적 용어로 구체화시키셨습니다.

나는 신이 항상 하나 안에 세 분이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것을 알리지 않았고, 삼위일체 교리는 은혜 교리의 하위 집합인 것 같다. 우리는 두 번째 인격이 우리 죄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고, 궁극적으로 죽고 부활할 때 신격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셨지만, 구속 역사가 성육신으로 옮겨가고 오순절로 옮겨갈 때까지는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믿는 이들에 관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습니다. 17:23.

나, 예수는 믿는 자들 안에 있고, 당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는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아들 안에 있는 것은 아들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의 평행법이 보여주듯이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10. 게다가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나가심과 성령의 들어오심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리라 .

14. 20. 사실, 아버지 와 아들은 서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

아버지 안에 있고 ,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 14: 10.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14:11.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이. 17:21. 네 번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와 아들이 서로 안에 계시거나, 다르게 말하면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상호 내재, 즉 상호 신성한 내재 때문에 놀랍게도, 지상에 있는 사람인 예수를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14:9. 위의 구절 중 어느 것도 상호 내재에 성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성령의 사역을 대체로 오순절 이후로 미룬 패턴과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체계화하고 성령을 포함시킨다. 세 명의 삼위일체적 인격은 모두 서로 안에 있다.

그들은 신성한 삶을 공유합니다. 그들 각자는 거룩한 신이며 다른 두 신성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잠들게 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다시 끌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아들이 믿는 이들 안에 계실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 와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들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20.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그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제적 기도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믿는 이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들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17:22-23. 몇 구절 뒤에 그는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26절.

더욱이, 아버지 와 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 안에 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따뜻한 이미지로 전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4:23. 아버지와 아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물론, 풀러의 신약 계시는 이 신성한 내주에 성령을 포함시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바울은 주로 이 역할을 성령께 할당합니다. 카슨은 이 구절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여, 인용문, 신자 안에 삼일 하나님이 거하심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인용문 닫기. 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요한이 말하지 않은 것을 체계화하는 것을 보고 기쁩니다.

아버지와 아들 과 믿는 자들은 서로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와 아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들은 서로 안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서로 안에 거할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아버지 와 아들과 믿는 자들은 서로 안에 거할 것입니다 . 믿는 자들은 아버지 와 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믿는 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자신의 척도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17:21. 요한은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안에 있거나 서로 안에 거할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인용하셨습니다.

14:20. 예수와 그의 참 제자들은 서로 서로 거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6:55-56.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사랑, 그리고 아들의 성육신, 죽음, 부활로 인해, 믿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자들은 피조물이 신성한 삶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은혜의 행위로서 삼위일체적 인격에 상호 거주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크럼프의 말은 요점을 잡고 인용하며, 요한의 구원에 대한 이해의 심장과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삶에 상호 거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성한 삶과 사랑의 교환에 모든 신자가 포함되는 것은 그의 메시지의 본질, 심장, 영혼입니다.

그것은 저널 기사입니다, 데이비드 크럼프, 요한 삼위일체, 페리코레스시스 또는 신격화, 스코틀랜드 신학 저널, 59, 4호, 2006년, 410페이지. 그 인용문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에 성령을 포함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어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을 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은 바울처럼 영의 역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연관시키지는 않지만, 요한은 체계적 신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런 요점에 대해 반복적이라는 평판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체계적 신학을 성경에 근거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없다. 신청. 질문이 제기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뭐요? 이 요한 신학이 무슨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신자들은 이 진리와 그것이 전달하는 현실에 경외감과 경배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 그것을 상상할까요? 인간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요한 복음 전체에 있는 신성한 지문의 증거입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여기에는 생각할 거리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에 대한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참된 음식이신 신의 아들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6:55-57. 다시 말해서, 그 구절들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무 부유합니다. 요한복음 6:55-57.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한 것도 당연하니라.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우리는 우리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아들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삶을 위해 매일의 빵에 의지하듯이 영적 양식을 위해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아들은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시대의 끝에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셋째, 신성한 인격의 공동적 결합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대해 배우기 위해 아들 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4:8-11).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우리를 그의 인격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그의 인격으로 더 깊이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혜택을 얻지만, 그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우리의 초점으로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말씀, 길을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는 내 안에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요 14:9-10). 넷째, 우리는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할 특권과 책임이 있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요 15 :9).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그와 함께 걸으며 그와 풍성한 교제를 누립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과 기쁨이 뒤따릅니다. 다섯째, 요한복음 17:22-23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에 대해 들은 후, 아버지여,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계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세상이 당신이 나를 보내신 줄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이니이다. 여섯째, 요한복음 17:22-23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에 대해 들은 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일치를 살아내도록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교리, 편견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환영한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을 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로마서 15:7.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제 인용문이 틀렸거나 제 진술이 틀렸습니다.

나는 그것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신 것처럼 서로 환영하라. 오, 그게 더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대신, 우리는 교리적으로 건전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성경의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모든 참된 신자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교파적 특징을 바람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LCD, 즉 최소공배수 기독교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도 다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요한복음 17장입니다.